

가족의 지지를 통한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시니어 패션모델을 중심으로

임수아¹ · 허진무² · 양현민³

¹연세대학교 석사과정 · ²연세대학교 교수 · ³Texas A&M 대학교 박사과정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through Family Support among Older Women: Narratives of Senior Fashion Models

Im, Sua¹ · Heo, Jinmoo² · Yang, Hyunmin³

^{1,2}Yonsei University · ³Texas A&M University

Abstract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y is important to improving well-being of older adults. Among various leisure activitie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fashion modeling among older adults. Using qualitative method, we explored the behavior of older adults who are engaged in fashion modeling.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family support facilitates continued participation in senior fashion modeling.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9 older women.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fashion modeling was associated with family support, and the behavior of senior fashion modeling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involvement: devoting, compromising, and abandoning. We suggest that senior fashion modeling is a promising leisure activity for older adults which could promote successful aging.

Key words : senior fashion modeling, leisure, family support, successful aging

주요어 : 시니어 패션모델, 여가활동, 가족의 지지, 성공적 노화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eo, Jinmoo

Yonsei University, Yonsei-ro 50,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heoj@yonsei.ac.kr

Received: April, 30, 2020 Revised: June, 7, 2020 Accepted: June, 17, 20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통계청, 2019).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와 맞물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한다는 국가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단순한 식단 관리에서 여가 활동을 통한 액티브에이징(active-aging)으로 관심의 추를 옮겨갔다. 노년기에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퇴직이나 자녀의 장성 등으로 인하여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 발행한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60세 이상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수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허준수, 2002).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산책 및 걷기’가 높았는데, 이는 중장년부터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노인들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에는 개인적 문제와 사회문화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개인적 문제로는 낮은 수준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고, 사회문화적 문제로는 인프라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다. 조경욱(2005)은 건강 문제나 경제적 능력의 부재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장애요인이 됨을 밝혔고, 허준수(2002)는 사회문화적 여가활동의 제약 요

인으로 비용과 장소의 접근성을 제시했다.

기존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로 건강과 경제를 노인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었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조경욱, 2005). 사회적 지원란 정서적 지원, 존중감 지원, 관계망 지원을 내포하는 개념으로(Cobb, 1976; Kahn, 1979), 자기 효능감과 더불어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박영신 외, 1999; 박영신 외, 2002). House(198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기능별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 물질적 지지, 2) 정서적 지지, 3) 평가적 지지, 그리고 4) 정보적 지지로 구분된다. 물질적 지지는 시간, 도구, 재화 등 직접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지하는 것이며, 정서적 지지는 애정, 존경, 신뢰, 관심 등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수용 등 개인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지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적 지지는 정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삶의 전환점에서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능력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지지는 이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Barrera, 198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추고,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며, 조직 몰입, 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령, 2005; 배점모, 2015). 삶의 전환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연구한 Belea & Calauz(2019)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당면한 문제들에 비교적 적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떠나거

나 자녀를 독립시키는 등 가정과 사회로부터 역할 축소를 경험하는(조경옥, 2005) 삶의 주요한 전환점이 된다. 사회관계망이 줄어들에 따라 가족은 노인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를 독립시킨 노인 부모의 경우는 배우자의 지지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 Langford 외(1997)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 세대보다 건강 문제가 많고, 자원이 적으며, 지지적 관계를 더욱 필요로 한다. 동료의 지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연구(Ursano et al., 1992)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동료로서 배우자의 지지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성 노인에게 가족의 지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낮은 참여를 보이며, 지속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낮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여성은 또한 남성에 비해 여가동기가 낮으며, 경제적 제약을 크게 느끼고 여가비용을 적게 지출한다(성기원 외, 2005).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조경옥, 2005; 조명환, 2005)에서도 여성 노인은 주로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자기계발형 혹은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성의 여가에서 사회적 동기요인이 부족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보숙 & 최병길, 2010). 가정이 곧 사회였던 여성 노인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특별한 계기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사회활동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조경옥(2005)은 사회적 지지가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면서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

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가 활동 중 패션모델 활동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시니어 패션모델은 예비노인과 노인을 망라하는 패션모델로, 전문적인 모델이 아니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아마추어 모델이다. 모델이라는 활동의 특성 상 시니어 패션모델은 여성 참여자가 주를 이루는 여성 중심의 활동이다. 여성 노인들의 여가 활동 참여는 건강과 웰빙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Son, Yarnal, Kerstetter(2010)에 의하면 여성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이 감소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 확대와 공동체 의식이 제고된다.

특히 가족의 지지가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Orsega-Smith, Payne, Mowen, Ho, & Godbey, 2007). 여성 노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가 활동 중 시니어모델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서 가족의 지지가 특히 중요하다. 시니어모델 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무대에 서는 경험을 오랜 시간 꿈꿔왔지만, 주위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그 꿈을 실현하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아주경제, 2017). 그러나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로 시니어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이유진, 2019), 이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시니어모델 활동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여가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시니어모델들의 활동과 노년기의 삶에서 모델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성 중심의 여가활동인 패션모델의 사례를 통해 가족의 지지가 노인 여성의 여가활동에서 어떻게 지속 및 몰입에 작용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노인의 여가활동과 가족의 지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

이므로 근거이론을 통해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여 실제이론을 만들고, 이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나 기존의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현상이나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Strauss와 Corbin(1990)은 ‘이론이란 개념 간의 관계이며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되고 명확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분석절차에 따라 가족의 지지와 노인 여성의 패션모델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연구대상)를 선정하였다.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성별은 여성이며,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션모델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시니어 패션모델 양성기관인 ‘뉴시니어라이프’에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관의 관리자로부터 19명을 추천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1)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패션모델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문 기사, 노인의 여가와 관련된 연구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성명	연령	경력
1	김지현	70세	4년차
2	정혜숙	65세	8년차
3	민영옥	69세	3년차
4	김현선	80세	6년차
5	최미령	66세	9년차
6	지세진	71세	8년차
7	최현례	67세	11년차
8	유옥주	70세	8년차
9	이은자	85세	12년차
10	강미자	72세	2년차
11	홍윤자	65세	7년차
12	손지숙	73세	4년차
13	안미란	68세	2년차
14	김여희	78세	6년차
15	박안순	65세	7년차
16	주경미	66세	7년차
17	이영순	67세	2년차
18	이현미	76세	11년차
19	서희림	65세	2년차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가명 처리하였음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심층면접이 진행된 2019년 기준임

및 보고서, 여가 관련 이론, 사회적 지지 이론 등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여가 활동에 사회적 지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로 ‘가족의 지지를 통해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함’을 확정하였다.

2)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약 2개월 간 연구참여자 19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질문의 방향과 예시질문을 준비하였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수정해가며 진행하였다.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연구대상)가 연습하는 곳의 사무실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택한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연구자가 이론적 포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했을 때 면담을 중단하는 이론적 표집을 택하였다. 예시질문은 ‘패션모델 활동을 하

면서 유익했던 점', '삶에서 패션모델 활동의 중요성', '패션모델 활동과 관련된 가족의 지지', '패션모델 활동에 따른 가족 내의 변화' 등이었다. 연구참여와 면담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일회당 45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근거이론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하고 메모를 기록하며(Stern, 1980),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다(Strauss & Corbin, 1990; 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에서는 자료를 한 줄 한 줄 검토하여 개념화하고, 추상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김소선, 2003). 이어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의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찾고 축코딩의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과정을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실제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반증 사례 연구(negative case analysis), 연구참여자 검증(member checking), 동료 간의 협의(peer-debriefing),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등 여러 분석방법을 사용한다(Creswell, 1998).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여가활동의 부정적 사례 역시 다루면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엄격함을 유지하였다(Hanson, 2017). 또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 내용을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사실여부를 재확인하는 연구참여자 검증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동료 간의 협의를 위해서 여가학 전공 박사 2인에게 지속적인 조언을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실제자료를 한 줄 한 줄 검토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추상화과정이다(김소선, 2003).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작성한 전사지를 줄 단위로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개념을 발견하였고, 명명화를 통해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39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10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범주별 속성과 차원 역시 도출하였다. 속성은 범주의 특성이며, 차원은 속성의 위치를 나타내므로 범주 간의 관계 형성의 근거가 된다(김소선, 2003).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 범주, 속성과 차원은 <표 2>와 같다.

2. 축코딩

축코딩이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한 범주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범주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김소선, 2003; 이동성 & 김영천, 2012). 축코딩은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되며, 축코딩을 통해 가설이나 이론적 관계 진술문을 발견하는 선택코딩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현상의 발생이나 전개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노인 여성의 패션모델 활동 참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김소선, 2003)이다. 본 연구의 인과적

표 2. 개념, 범주, 속성, 차원(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속성	차원	상위범주
희비 지원/ 의상 지원/응원	물질적 지지	상태	존재 - 부재	가족의 지지
활동 찬성/응원	정서적 지지			
활동 추천/ 활동 제안	평가적 지지			
활동 소개/ 정보 제공	정보적 지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양호한 건강상태	수준	주요함- 가벼움	개인적 조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상황	경제적 여유			
자녀의 장성/ 자녀의 독립/ 가사에서 해방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	수준	주요함- 가벼움	사회적 조건
예비퇴직/퇴직	일터에서의 역할 축소			
건강 유지/ 건강 향상/ 더딘 노화	신체적 보상	정도	큼 - 작음	보상
자부심/즐거움/행 복	심리적 보상			
최초의 사회생활/ 새로운 사회생활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활동비/ 부수적 비용	경제적 부담	정도	큼 - 작음	제약
손주 돌보기/ 배우자 돌보기	시간 부족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	부정적 주변 인식			
배우자의 반대	가족의 만류	수준	주요함- 가벼움	제약 경험
개인적 제약/ 환경적 제약	제약을 경험			
가사보다 우선시함에 따른 양해 구하기	삶의 우선순위	정도	적극적- 소극적	가족의 지지 구하기
가족을 지지	사회적 지지 교환			
가족의 지지로 제약 상쇄	가족의 지지 획득	수준	주요함- 가벼움	가족의 지지 획득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낌	고마움과 미안함			
패션모델 활동 모두 참여	전체 참여	정도	적극적- 소극적	참여 정도 변화
패션모델 활동 부분적으로 참여	부분 참여			
패션모델 활동 잠정적으로 그만둠	참여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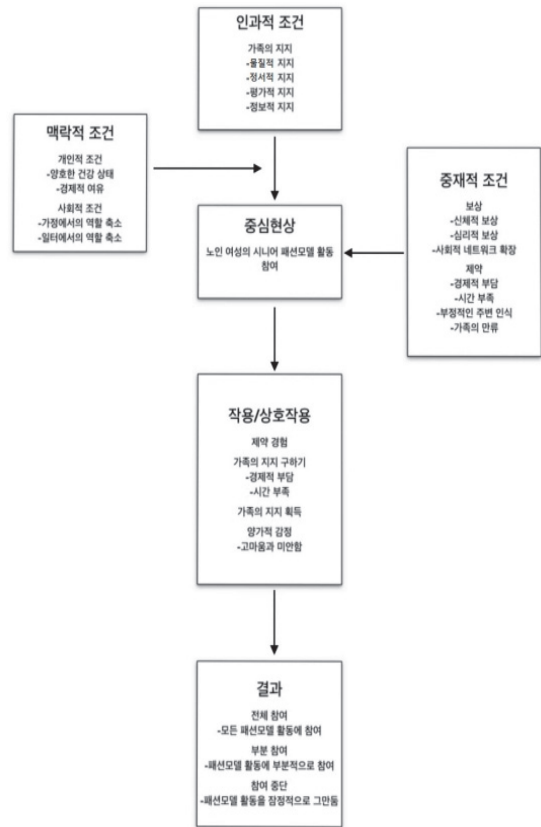


그림 1. 패러다임 모형(축코딩)

조건은 ‘가족의 지지’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속성인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House, 1981)가 노인 여성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는 원인으로 분류되었다. ‘물질적 지지’는 직접 제공받는 물질적 지원으로, 노인 여성이 제공 받는 가족의 경제적 도움, 의상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감정적 지지로, 패션모델 활동 참여 결정에 가족이 보내는 찬성, 응원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는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수용이다. 노인 여성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기를 망설이거나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가족은 활동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지지를 보냈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이 활동을 소개하거나 활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여성의 패션모델 활동 참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였다. 즉, 노인 여성은 전반적인 가족의 지지를 계기로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족의 지지 - 물질적 지지] 큰 며느리가 여기 오면 교육기간에 기십만원을 내요. '왜 우리들 언니만 내냐.' 막내딸이 같이 합쳐가지고 저를 한 4년 넘기고 5년 넘게 내줬어요. 지금은 자비로 내고. 제가 "이제 그만해라, 그만큼 했으면 효도했다." 착하죠. 제가 봐도 착한 것 같아요. (김현선, 80세)

우리 식구들이 너무 오버하는 게 뭐냐면 비싼 드레스, 댄스복도 몇백만 원짜리... 나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맞춰줬어요. (김지현, 70세)

[가족의 지지 - 정서적 지지] 치료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그만두고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 모습이라도 우리 앞에서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딸이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제가 문득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식구들을 괴롭혔구나. 내가 살아야 식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진장 노력을 했고, 몸이 조금 살아나니까 저걸(시니어 패션모델) 좀 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지현, 70세)

딸에게 "사실은 엄마가 이런 데 가봤는데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한번 가보재요. 보더니 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인네들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딸이 보기는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는 하고싶어?" 그러더라고. 하고싶다고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 즉시 등록을 해주더라고요. (최미령, 66세)

[가족의 지지 - 평가적 지지] 며느리가 우리 어머님 옷 입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소개해준 거죠. 내가 옛날부터 이런 거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거는 있었는데, 용기도 안 나고, 말도 서울 와서 너무 틀리고, 사투리라서. 근데 마침 며느리도 권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김여희, 78세)

난 여행 중에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언니한테 맞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를 저가(동생이) 딱 메모를 해줬다가 여기 찾아가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왔다가 바로 정착을 했지요. (지세진, 71세)

[가족의 지지 - 정보적 지지] 애들이 다 출가했잖아요, 딸들이. 조금만 전화 안 와도 그냥 섭섭하고 애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왜 전화 안 해? 뭐해, 니네들." 자꾸 그러니까 "엄마, 취미생활을 해야겠다. 엄마는 키도 크고 다 괜찮으니까 엄마 모델 좀 해봐." "나 못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니?" 그랬더니, "엄마, 엄마는 할 수 있어." 자기가 인터넷을 찾아서 어디 어디에 삼성역에 그리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지숙, 73세)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중심사건들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이동성 & 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를 중심현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건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노인 여성들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이며, 또한 그들이 활동 참여 후에 마주하게 되는 여가의 지속 요인이나 제약 요인에 가족의 지지가 작용하는 양상이다.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특정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건으로(김소선, 2003), 현상과 관련된 속성들이 '어디에' 위치해있는가를 뜻한다(이동성 & 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여성이 가족의 지지를 계기로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러한 맥락을 '개인

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조건'은 '양호한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유'로, '사회적 조건'은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와 '일터에서의 역할 축소'로 나타났다. 노인 여성들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혹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조건 하에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여성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역할의 축소를 경험하는 시기적 특성에 의해 여가활동에 참여하였다.

[개인적 조건 - 양호한 건강 상태] 젊어서 많이 고생했어요. 이렇게 남편 돌아가고 하나님은 혼자 살고 견디라고 했는지 그때부터 건강이 조금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건강해서 이것도 활동하고 있고. (이은자, 85세)

[개인적 조건 - 경제적 여유] 럭셔리 시니어, 이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요새 트렌드가. 난 옛날에도 그냥 은퇴 준비를 해놔가지고 경제적인 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32년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최현례, 67세)

[사회적 조건 -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 우리 시대에는 솔직히 그랬잖아요. 현모양처.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내 취미라든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미처 못 했었죠. 내가 하고 싶어도 옛날에는 애들 하나 더 가르치고 싶어서 못 했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하고. (유옥주, 70세)

[사회적 조건 - 일터에서의 역할 축소] 그 전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1, 2년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그때는 회사 일을 놓고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 내가 올 무렵 되어서 아침마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더 미루면 안 되겠구나. (박안순, 65세)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과 작용/상호작용을 중재하는 조건으로, '언제' 사람들이 행동이 촉진되거나 제한되는가를 의미한다(이동성 & 김영천, 2012; 최영래 & 배재운, 2018). 본 연구에서는 '보상', '제약'을 경험할 때 여가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상'은 '신체적 보상', '심리적 보상',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으로 나타났고, '제약'은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부정적인 주변 인식', '가족의 만류'로 나타났다. 노인 여성들은 가족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패션모델 활동으로 '보상'을 느낄 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어했으며, '제약'을 느낄 때 활동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보상 - 신체적 보상] 우리 친구들하고 모이면 다 이렇게 키가 몇 센치 줄어요. 2-3센치는 최소한. 자세 때문에 허리도 더 굽고, 살도 찌고, 병도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반듯하니까 허리가 굽지를 않아서. 저는 6-7년 전에 종합검진을 한 거하고 매년 하는데, 키가 하나도 안 줄어. 165 그대로, 지금까지. 워킹하니까 건강하다고 봐야죠. (지세진, 71세)

[보상 - 심리적 보상] 여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다 외모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는 나이가 있어도 뽀낼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과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좋고, 생활에 많이 활력이 되고. 디프레스였다가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곳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니어들이 이런 데를 하면, 요새 시니어들 우울증도 많이 문제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치료가 되고 즐거워지니까. (강미자, 72세)

[보상 -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다른 친척이나 형제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어떤 행사가 있고 해외 공연 나간

다 그러면 일주일에 2, 3번 만나기도 하니까. 1월엔 신년이라고 횃집에 갔었는데, 오늘은 보쌈집에도 가고. (김여희, 78세)

[제약 - 경제적 부담] 무대에 서서 교통비가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쇼를 하러 가면 굉장하잖아. 우리 지금 크루즈도 잡혔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거 다 우리 개인 비용 내고 가잖아요. 그럼 집에서부터 준비과정에 또 뭐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많이 부담스럽죠. 여기서 지금 무슨 수업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또 돈 내야 되고. 외국 가는 데 또 돈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스운 거예요, 돈이 수백만 원이 금방. (이영순, 67세)

[제약 - 시간 부족] (동료들과 사교활동은)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집에 갑니다. 해외(패션쇼)는 제가 못 가요. 애들은 가라고 하는데 지금 환자가 참... 제가 힘들어, 삶이. 지금 3년을 누워서 서지도 못 해. 그런 환자를 제가 돌보면서 굉장히 바쁘지. (김현선, 80세)

[제약 - 부정적인 주변 인식] 다른 사람들은 아기 봐주고 그러지 노인들이 주책없이 돈 쓰고 다닌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봐요, 더러는. (김지현, 70세)

[제약 - 가족의 만류] 남편은 뭐랄까, 좀 보수적이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아주 반대하는데... (김현선, 80세)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이란 중심사건과 관련하여 생긴 특정 상황 혹은 문제에 대해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펼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갖는 인식과 생각의 타협과 조정 과정을 포함한다(김소선, 2003; 이동성 & 김영천, 2012). 즉, ‘누가’ ‘어떻게’ 문제 상황에 대응

하는가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은 ‘제약의 경험’, ‘가족의 지지 구하기’, ‘가족의 지지 획득’, ‘양가적 감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제약의 경험’은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제약이다. 둘째, ‘가족의 지지 구하기’는 구체적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지지의 교환’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에 제약을 겪음에 따라 참여자들이 택한 전략이었다. 가족에게 본인이 패션모델 활동을 우선으로 두어도 될지 여부를 묻거나, 오히려 가족에게 지지를 보내며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로 인해 셋째, 많은 참여자들은 ‘가족의 지지 획득’을 경험하며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양가적 감정은 구체적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여성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제약의 경험] 어떤 사람들이 그렇대요. 너무 (활동에) 집중하니까 하루는 아빠가, 나가는데 “니가 연예인인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정혜숙, 65세)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 화려해지는 게 있겠죠. 이어령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아이는 “더 이상 화려해지면 안 돼.” “엄마, 더 이상 화려한 건 싫어.” (중략) 그런(화려한) 것들이 쇼에서는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정혜숙, 65세)

[가족의 지지 구하기 - 삶의 우선순위] 시할머니 제사가 다가왔어요. 근데 그 날이 마침 청계천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저도 한번도 가정에서 그런 날을 빠져보거나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두 번째 쇼인거, 세 번째 쇼인거 그렇게 됐는데, 쇼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안순, 65세)

[가족의 지지 구하기 - 사회적 지지의 교환] 여기 뉴시니어를 나오니까 나를 찾고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니까 그런 게 이만 하던 문제가 요만해진 거야. 에너지를 여기서 다 쏟으니까 그렇게 생활패턴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편안해지고 애들도 좋아지고 와도 지네들도 눈치 안 보이고. 엄마가 힘들어할 적에는 지네들도 이렇게 하면 엄마가 덜 힘들까, 저렇게 하면 엄마가 덜 힘들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엄마가 너무 발랄하다 못 해 발칙하게, 밝고 해맑게 잘 놀고 그러니까. 애들도 부담 없으니까 더 좋아하고. (홍윤자, 65세)

[가족의 지지 획득] 남편이 “제사를 가지 말고 패션쇼를 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냥 쇼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행사를 하면 애들도 와서 구경하러 오라고 그러고 남편도 오라고 그러고. (박안순, 65세)

여기서는 계속 여행도 많이 가거든. 집을 많이 비우게 돼요. 남편이 이해 안 하면 힘들지. 근데 성격상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 내가 (패션모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여행도 못 하고 여기만 집중을 했었어.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니까 (남편이)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이런 거 보고는 남편이 오히려 지지하는 편이야. 괜히 자기가 더 흥분을 해, 뭘 얘기를 하면. 우리 나이대는 다 인자 처져있잖아. 정말 할머니잖아. 근데 조금 아무래도 옷 입는 거나 뭐나 조금 튀지. 그러니까 남편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하니까 우쭐하는 거야. (지세진, 71세)

(가족들은) 바쁘니까 청계천 (쇼를) 주말에 하면 와서 보고가고,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도 해주고. 아무래도 정확하잖아요. 남들은 예쁘다 해주는데 가족이 말해주는 건 진담이잖아요. 그걸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 해주는 거라... (최미령, 66세)

우리 아들이 “아니, 엄마 뭘 짓을 한 거

야?” 너무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 일(패션모델)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당연히 지네들 얘기 봐줘 어찌고 이 소릴 안 하죠. (민영옥, 69세)

[양가적 감정 - 고마움과 미안함] 제가 무대에 서니깐 남편이 쫓아다니면서 동영상 같은 거 본인이 배워서 쫓아다니면서 편집해 돌리고, 식구들이 좋아하고. 제가 첫 무대에 섰을 때 우리 딸이 “엄마, 엄마가 무대에 선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 꿈같은 얘기”라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지. 식구들은 말없이 지켜봐줬지만 나는 나대로 힘들고 가족들이 응원을 해줬을 때 정말로 내가 식구들을 몰랐구나. 식구들 마음 모르고 내 생각만 했구나. 지금은 남편한테 제일 감사하죠. 애들한테도 고맙고. (중략) 처음에는 남편이 추운 날하고 비오는 날에는 계양역까지 데려다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걸어다녀요. 데려다주고 데리러오는 거 하지 말라고 하죠. (김지현, 70세)

6) 결과

결과관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참여자에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김소선, 2003; 최영래 & 배재운, 2018). 본 연구에서 패션모델 활동의 지속 여부는 다시 한 번 가족의 지지를 통해 ‘전체 참여’, ‘부분 참여’, ‘그만둠’의 세 가지 결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결과인 ‘전체 참여’는 연습, 패션쇼, 크루즈 투어, 사교모임 등 ‘모든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결과인 ‘부분 참여’는 연습, 패션쇼, 크루즈 투어, 사교모임 등의 ‘패션모델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결과인 ‘참여 중단’은 ‘패션모델 활동 전체를 잠정적으로 그만둠’이었다. 이처럼 노인 여성들은 작용/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참여의 정도를 결정하였다.

[전체 참여 - 모든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가

족들도 열심히 건강해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남편도 그렇고. 이제까지 회사(시니어 패션모델 단체)에서 해외가는 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최미령, 66세)

[부분 참여 - 패션모델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 거기(해외 쇼)는 나가자고 몇 번이나 했는데. 미국도 있고, 지금도 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싶어. 그 돈은 아까워, 그거는. 저는 패션쇼를 꼭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나는 드레스는 또 안 입고 싶거든요, 나이도 있는데. 젊은 사람도 아닌데 아무래도 좀 처지잖아요. (이현미, 76세)

[참여 중단 - 패션모델 활동 전체를 잠정적으로 그만둠] 1년 되면 저희 졸업생이 20명 되고, 2-3년 후에는 두세 명 남아요. 경제적 부담으로. 저도 우리 기수에서 1명 남았어요. (주경미, 66세)

3. 선택코딩

선택 코딩에서는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함으로써 자료를 고도의 추상화된 이론으로 전환한다(이동성 & 김영천, 2012).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의 관계를 연결한 후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김소선, 2003).

1) 이야기 개요

선택코딩에서 형성된 이야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성 노인은 가족의 지지를 계기로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하였다. 개인적 맥락으로는 건강과 경제가 뒷받침되고, 사회적 맥락으로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역할의 축소를 경험할 때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패션모델 활동 과정에서 여성 노인들은 각기 보상과 제약을 경험하였다. 제약과 관련하여 여성 노인은 가족에게 지지를 구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지지를 보내는 가족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의 지지를 통해 여성 노인은 패션모델 활동의 참여정도를 변화 및 조절하고 있었다.

2) 핵심범주

Strauss & Corbin(1990; 1998)에 의하면 선택 코딩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핵심범주를 생성하여 무엇에 관한 연구인지를 추상화하는 일이다(이동성 & 김영천, 2012). 핵심범주는 자료에서 나온 중심주제에 대한 명명(김소선, 2003)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코딩을 바탕으로 중심현상인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의 조건이 되는 ‘가족의 지지’, ‘개인적 조건’, ‘사회적 조건’, ‘보상’, ‘제약’을 도출하였고,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 및 상호작용으로 ‘제약 경험’, ‘가족의 지지 구하기’, ‘가족의 지지 획득’, ‘양가적 감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전체 참여’, ‘부분 참여’, ‘참여 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노인들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어서 가족의 지지가 여가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코딩을 통해 범주를 통합하고 ‘노인 여성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함’이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3)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문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인 ‘보상’, ‘제약’에 대하여 핵심범주 ‘노인 여성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패션모델 활동에 참여함’의 가설을 정형화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핵심범주의 가설적 정형화 유형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보상	제약
1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	큼	작음
2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	큼	큼
3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	작음	큼

첫 번째 유형: 패션모델 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크고 제약은 작은 경우,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는 ‘제약 경험’, 가족의 지지 구하기, ‘가족의 지지 획득’, ‘양가적 감정’을 통해 ‘전체 참여’로 이어졌다.

두 번째 유형: 패션모델 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크고 제약도 큰 경우,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는 ‘제약 경험’, ‘가족의 지지 구하기’, ‘가족의 지지 획득’, ‘양가적 감정’을 통해 ‘부분 참여’로 이어졌다.

세 번째 유형: 패션모델 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작고 제약은 큰 경우, ‘노인 여성의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 참여’는 ‘제약 경험’, ‘가족의 지지 구하기’, ‘가족의 지지 획득’, ‘양가적 감정’을 통해 ‘참여 중단’으로 이어졌다.

4) 가족의 지지를 통한 활동 참여 유형 분석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문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전체 참여’의 결과를 보이는 유형은 시니어 패션모델의 활동으로 얻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몰입하여 참여한다. 이에 따라 ‘몰입형’의 참여 유형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유형인 ‘부분 참여’의 결과를 보이는 유형은 시니어 패션모델의 활동으로 얻는 효용이 보통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타협형’의 참여 유형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유형인 ‘참여 중지’의 결과를 보이는 유형은 시니어 패션모델의 활동으로 얻는 효용이 적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단념형’의 참여 유형으로 분류된다.

몰입형

몰입형에 속하는 시니어 패션모델은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등 패션모델 활동에 몰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패션모델 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크므로 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하고, 가족의 지지 역시 많기 때문에 제약을 작게 느낀다. 즉, 보상이 제약보다

크므로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만큼 활동에 몰입하는 참여 양상을 보인다.

타협형

타협형에 속하는 시니어 패션모델은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패션모델 활동에 타협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패션모델 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크지만, 몰입형에 비해 가족의 지지가 부족하여 경험하는 제약 역시 크다. 즉, 보상과 제약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므로 상황에 따라 타협적인 참여 양상을 보인다.

단념형

단념형에 속하는 시니어 패션모델은 활동을 포기하고 패션모델 활동 참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패션모델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부족할 때 제약이 크게 다가오므로, 여건 상 더 이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다. 즉, 보상보다 제약이 크므로 활동을 단념하는 양상을 보인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패션모델의 여가활동에서 가족의 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근거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 노인들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여가활동에서 마주하는 제약 역시 가족의 지지를 통하여 헤쳐나가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방코딩의 결과 39개의 개념과 23개의 하위범주, 10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둘째, 축코딩의 결과, 중심현상과 함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발견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형성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의 결과 ‘가족의 지지를 통한 시니어 패션모델의 참여’ 과정 유형을 ‘몰입형’, ‘타협형’, ‘단념형’으로 분류하였다.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은 적극적 여가 활동으로,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 및 액티브에이징(active-aging)과 연관이 깊다. 본 연구에서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의 보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보상이 정리되었고,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Brown et al., 2008; Lee & Payne, 2016). 또한 본 연구에서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으로 여성 노인을 이끈 가족의 지지(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기존의 사회적 지지 이론의 4가지 속성과 일치한다(Barrera, 1986; Tilden & Weinert, 1987). 이를 통해 가족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서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 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인 효과로 독립성 및 자긍심의 약화를 제시했는데(George, 1989; Silverstein et al., 1996), 이것 역시 가족의 지지를 마주한 연구 참여자들이 '양가적 감정'을 느꼈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모델 외에 다른 유형의 여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니어 패션모델은 일반적인 여가와 달리 다소 특수한 위치에 있다. 상대적으로 여가 참여자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요구되며, 소수의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노인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가족의 지지가 여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지지 중 배우자의 지지로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의 지지 수준은 비슷했으나, 배우자의 지지 수준의 차이가 여가 제약의 극복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탐구한다면,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성공적 노년을 구상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보숙, & 최병길. (2010).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249-269.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소선.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69-81.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 민병기. (1999). 초등학교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배점모. (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49-70.
- 성기원, 이연숙, & 장윤정. (2005).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4), 131-146.
- 아주경제. (2017). <https://www.ajunews.com/view/20170522170941221>
- 이동선, & 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유진. (2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170600001
- 조경옥.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203-229.
- 조명환. (2005).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

- 동유형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7(4), 7-23.
- 최영래, & 배재윤. (2018).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의 학교체육환경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체육과학연구*, 29(3), 495-519.
- 통계청. (2019). 2018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70781&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227-247.
- Barrera, M., Jr.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elea, M. & Calauz, A. (2019). Social support: a factor of protection against stress during adolescence. *Revista de Cercetare si Interventie Sociala*, 67, 52-66.
- Brown, C., A., McGuire, F. A., & Voelkl, J. (2008). The link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serious leis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1), 73-9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rbin, J., & Strauss, A.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3-21.
- Corbin, J., & Strauss, A. (2008).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George, L. K. (1989).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course. In K. S. Markides & C. L. Cooper (Eds.), *Aging, stress and health* (p. 241-267). John Wiley & Sons.
- Hanson, A. (2017). *Negative case analysi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1-2.
- House, J. S. (1981). *The nature of social support*.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1330.
- Kahn, R. (1979). Aging and social support. *Aging from birth to dea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1, 77-91.
- Langford, C. P. H., Bowsher, J., Maloney, J. P., & Lillis, P. P. (1997). Social support: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95-100.
- Lee, C., & Payne, L. L. (2016). Experiencing flow in different types of serious leisure in later life. *World Leisure Journal*, 58(3), 163-178.
- Orsega-Smith, E. M., Payne, L. L., Mowen, A. J., Ho, C. H., & Godbey, G. C. (2007).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shaping the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of older adul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4), 705-727.
- Silverstein, M., Chen, X., & Heller, K. (1996). Too Much of a Good Thing?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70-982.
- Son, J., Yarnal, C., & Kerstetter, D. (2010). Engendering social capital through a leisure club for middle-aged and older women: Implications for individual and

- community health and well-being. *Leisure Studies*, 29(1), 67-83.
- Stern, D. N. S.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2,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Tilden, V., & Weinert, C. (1987). Social support and the chronically ill individual.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2(3), 613-620.
- Ursano, R. J., Fullerton, C. S., Wright, K. M., McCarroll, J. E., & Norwood, A. E. (1992). *Disaster workers: trauma and social support*. Uniformed Services Univ of the Health Sciences Bethesda Md Dept of Psychiatry.